인사말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누가 그 혁명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앞으로 전 세계 경제와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회고해보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이, 전기와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그 패권을 잡았다. 앞으로 지능정보화 사회인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와 정치의 패권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직면해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Computer Science(CS)”, 즉 “Coding”과 “Software(SW)”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코딩(Coding)이란, 쉽게 정의해서, 컴퓨터 언어인 코드를 통해 컴퓨터와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언어, 수단을 말한다. 즉, 컴퓨터가 인지 가능한 형태의 언어를 통해 홈페이지, 앱 등을 제작하고, 피지컬 코딩을 통해 사물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터넷 서핑과 오피스 Tool을 통한 문서작성과 같은 단순 컴퓨터 “활용”영역에만 만족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딩을 통해 직접 상상하고, 제작하고, 제어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코딩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매일 매일 발전하는 ICT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사고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즉, 컴퓨터처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능력을 배우는 도구로서 코딩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은 경쟁적으로 코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14년 SW중심사회 실현전략수립, 2015년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2016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18년도부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코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의무화 시켰다.

고려대학교 코딩스쿨은 오랜 기간 자체적인 고려대공학스쿨 프로그램의 운영과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SW코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단지 코딩 스킬 자체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되고, 코딩을 통해 사고력, 창의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본 원리에 충실한 피지컬 코딩을 구현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고려대학교 코딩스쿨은 대한민국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진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KUNETWORKS

Ph.D 박 선 옥